

투데이

배수장 정전 마비, 태풍 피해 키웠다

전남 133곳 중 8곳만 비상전원 설치 12곳 가동 중단돼 농경지 침수사태

지난 8~9일 릴레이 태풍(볼라벤·덴빈) 당시 도내 12곳의 배수장이 가동을 중단해 오히려 침수 피해를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강진 마량배수장 등 도내 배수장 12곳이 정전돼 가동

이 중단됐다. 지역별로는 강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3곳, 해남 3곳, 진도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당시 적게는 91mm~279mm의 비가 내렸고, 배수장 가동 중단으로 침수된 주변 농경지는 504ha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배수펌프장 133곳(시군 48곳·농어촌공사 85곳) 가운데 비상

전원이 설치돼 있는 곳은 6%인 8곳(시군 6곳·농어촌공사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나주(2곳)와 고흥(4곳), 강진(2곳) 등 3개 지역의 배수장만이 비상전원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 배수장에는 비상전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전남도의회 광영체(민주통합당) 의원은 27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배수장이 침수되고 정전되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늘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 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는데 물을 빼내야 할 배수장이 정

전으로 가동이 중단돼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상전원 미설치 배수장은 연차적으로 예산(68억원)을 확보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장의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등 배수능력을 높이고 배수장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배수장에 적용하는 설계적용 홍수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국지성 호우 및 낙뢰에 대비하여 배수장에 낙뢰보호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광영기자 kroh@kwangju.co.kr



강시장, 강원도청서 특강 “U대회 남북단일팀 공동노력” 제안

강원도 광주시장이 23일 강원도청에서 ‘강원,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강시장은 이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15광주U하계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는 광주시청에서, 강 시장은 강원도청에서 교차 특강을 했다. <광주시 제공>

F1 개최비용 절감위해 FOM과 추가협상 추진

박지사 “운영비 확보해 내년에도 꼭 개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3월 FOM과의 재협상을 통해 해마다 전년

전남도는 23일 “F1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관운영사인 FOM과 추가협상을 하고, 개최비용을 줄여 내년에도 대회를 계속 열 방침이다”고 밝혔다.

F1 대회를 열기 위해 FOM에 주는 돈인 개최권료는 올해에만 494억여원에 달하는 등 F1 적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272회 임시회에서 “F1대회는 한국의 대표행사로서 국가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협상을 하고, 대회 운영비를 확보해 내년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는 F1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적 경제효과 분석을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현재 50억원에 불과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FOM과의 재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점으로 미뤄 추가협상도 순탄하지는 않을

데비 10%로써 더 쥐야 하는 개최권료 규정을 폐지하고, 160억원에 이르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TV중계권료를 전액 감액했다. 이에 F1 원년인 2010년에는 725억원, 지난해는 598억원에 달하는 적자폭이 줄어들어 450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영기자 kroh@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투자회수율 10% 미만

박철홍 도의원 “전문조직·전담인력 배치 절실”

전남도의회 박철홍(민주통합당·당양) 의원은 23일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조성한 주요 산업단지 및 관광·숙박시설, 행복마을의 8월말 현재 투자비 대비 회수율이 평균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흥과 강진산단의 경우 1328억원이 투입됐으나 분양금 등 수입은 213억원에 그쳐 투입자금 회수율이 16%에 그치고 있다.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는 2671억원이 투입됐으나, 수입은 141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5%에 머물고 있다.

또 팜골호텔, 영산재, 오동재 등 호텔사업도 510억원 중 36억원만 거둬

들여 7%의 회수율을 보였고, 장성 행복마을을 조성사업은 173억원이 투입되지만 수입은 6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고작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사업에 착수했으면 투입자금 회수를 위해 전문 조직 편성, 인력 양성, 전담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영수지 적자는 2010년 43억원, 지난해 95억원이 발생했으나 이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익 실현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4~5년쯤 지나면 회수율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남해안 가을 적조 사실상 소멸

여수와 고흥 등지 해역에 넓게 퍼져있던 가을 적조가 최근 수온이 떨어져 소멸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이들 해역에서 검출됐던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지난 주말부터 급격히 줄더니 이번 주 들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해역은 지난 20일부터 전혀 코클로디니움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으며, 고흥지역도 21일 이후 적조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여수와 고흥 해역에 발령된 적조주의보도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가을 적조로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여수 안도에서 돌돔 3만5000여 마리가 폐사해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에 박병호 의회사무처장

광주시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병호 의회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광주시는 “24일자로 박 사무처장을 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공행정서비스 평가 광주시 전국 1위

광주시가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23일, 한국표준협회(KSA)가 조사한 2012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조사 가운데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평가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시청 행정서비스를 받은 시민 200명을 표본으로 공공성,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항목 조사결과를 점수로 환산 평가한 것이다.

올해 광주시는 79.5점으로 전국광역시 평균 74.3점을 크게 웃돌았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울산(79.1점)과 대구(75.2)가 광주시의 뒤를 이었으며, 도(道) 단위에서는 전북도가 1위를 차지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시, ‘2013년 세계고분자 포럼’ 유치 45개 회원국 참가...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광주시가 ‘2013 세계고분자 포럼’을 유치했다.

광주시는 전세계 45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대회인 세계고분자 포럼(Polychar 21, World Forum on Advanced Materials)을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고분자 포럼’은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의 고분자 과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협력 학회다.

1919년 창설된 비영리 비정부 단체인 IUPAC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 관련 학술어·단위·표기법·주기율표 등을 정할 정도로 권위와 명

성을 지닌 국제적 학술연합체로, 2년마다 총회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 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내 최초로 세계고분자 포럼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분자 순수화학분야 원천기술을 접할 수 있게 돼 R&D(연구·개발)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방지하상가 LED식물재배 사업자 선정

(주)장수채 컨소시엄, 팜공새싹 재배·문화공간 조성

광주시는 “서방지하상가 LED(발광다이오드) 식물재배시설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장수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수채 컨소시엄은 내년에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지하상가 1518㎡에 LED를 이용한 팜공새싹 재배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예산 27억원을 들여 지하상가 진출입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LED 조명으로 곰팡이를 살균하면 팜

공새싹이 잘 자라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LED 식물재배시설이 조성되면 수익창출은 물론 서방지하상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2월 민간투자자 차공된 서방지하상가는 분양이 저조해 지난 99년 10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시에 기부채납되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정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성,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철학연수원

수강연수 강의료 무료!

현재 무속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수강종목

사주명리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자미두수 천문별빛의 굴절과 인간의 운명, 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전동지할 비율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풍수지리 실전풍수의 음양택비결, 땅의 성정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준다.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禪의 길

조작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당은 일도 속명인 것인가? 도의 구극적인 진성은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2012년 10월부터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강의 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 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